

나는 문둥이었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칠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칠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개역, 레위기 13:1~17]

문둥이의 세 가지 의미

다 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들으면 거부반응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거부감이 전혀 없는 표현 중의 하나가 ‘문둥이’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면 이름도 없고 전부 동일하게 ‘문둥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다. 원래 문둥병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문동(文童), 학문하는 아이라는 뜻에서 썼던 말이 그렇게 와전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둥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겁줄 때 하던 말이 ‘문둥이에게 잡혀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지만 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데도 어른들이 아이들 겁줄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둥이가 아이들을 잡아가서 간 빼 먹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소견에도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간을 약으로 쓴다고 그러는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좌우간 말 안 듣고 집에 잘 안 들어 오고 혼자 숲에 늦게까지 놀면 ‘문둥이가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문둥이라면 무서워했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비참함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픈 이야기마다 주인공이 문둥병이 들어서 소록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가족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배를 안 타려고 부둥가를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했던 소설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의 문둥이는 비참함과 서글픔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병을 오늘날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병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나환자촌에서 나온 고기나 계란을 아무 거리낌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있지만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서 사는 아이들도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걱정을 않지만 2-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천형이었죠. 하늘이 준 천벌이라는 의미에서 천형이라고 불렀던 병입니다. 하물며 이 병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은 상당히 긴 본문인데,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센씨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본문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지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본문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으니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좀 재미없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함께 레위기를 공부했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레위기도 이렇게 재미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재미없는 법입니다. 기회가 되거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도 언뜻 보면 재미없는데 특별히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관한 이 얘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미도 없고 상관도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가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보약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살펴 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봅시다. 레위기에 제사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제사제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것임에도 우리가 제사제도를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걸 잘 공부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레위기의 많이 부분이 정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오늘 우리와 관계없는 듯 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구속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문둥병의 판정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문둥병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둥병은 이제 정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현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영혼에 드는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데려갈까요? 치료를 위해서 데려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이나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3절에는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애매한 경우가 나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일 동안 금고하라고 합니다. 금고란 격리 수용하라는 뜻이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아서 문둥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확인합니다. 칠일간 금고했음에도 잘 모를 경우에는 다시 또 칠일을 금고했다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10절에,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이라는 것은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11절에,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여졌으니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부정한 것이 확실하므로 격리 수용해 둘 필요 없이 바로 문둥병 환자로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번역의 어려움

13장 전체 본문이 너무 길고 내용도 많아서 주의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는 문둥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47절 이하에, 옷이나 가죽에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둥병이라기보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성 곰팡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류까지도 본문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앓았던 병이 무슨 병이죠? 속병입니다. 속병이라는 것이 현대 용어로 하면 무슨 병일까요? 어쩌면 화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습니다. 골병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심장병일 수도 있지만 전부 도매금으로 속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레위기가 기록이 될 시절에 병을 분류하는 방식이 오늘날처럼 세밀하고 전문적

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성경이 좀 폭 넓게 이런 병들을 전부 문둥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교사로 있을 때 경주로 발령이 나서 가다보니까 출근길이 참 아름답더라구요.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그 소감을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개량된 무궁화도 많이 피고 벚꽃도, 개나리도 많이 폼니다. 이런 꽃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니까 이름도 괴상망측하고 길어서 설명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네요. “당신은 미국 사람 아니냐?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면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분 얘기가 지금 자기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꽃들이 미국에서 보던 꽃과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의 멸치, 쫄치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고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고기와 연결시켜 놓았을 뿐이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랍니다. 옛날에 히브리말로 기록된 것을 시간도, 공간도 엄청나게 다른, 오늘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에 대한 분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되기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면 현대의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곰팡이 종류를 문둥병이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30절부터 보시면 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일종의 기생충입니다. 욕 종류도 문둥병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번역상 어느 정도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뭐라고 옮길 것인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멋지게 발견해낸 말이 ‘하나님’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없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발견해낸 것은 성경을 번역해낼 때 발견해낸 멋진 말입니다. 그렇다고 매사가 이렇게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시다.

옛날 성경을 구경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에 개념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란 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저도 상상도 못했지요. 안식일을 ‘사밧닐(日)’이라고 해놓았더라구요. 이게 뭐냐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말로 안식일은 ‘사바쓰’인데 영어로 ‘사밧day’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사밧닐(日)’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사밧닐’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길게 달아놓은 거죠.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보면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수고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이는 듯 싶어요. 그렇게 성경을 오래도록 쓰다가 누군가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었겠지요.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일이란 용어를 씁니다만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병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겠지만 초창기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역해 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이 선교역사에서 특이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의 한 분이 존 로스라는 분인데 이 분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워가며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도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했더니 언어 번역에 재능이 있는 분을 물색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목사님을 파송한 겁니다.

이 분은 도대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 머나먼 곳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가며 성경을 번역해낸 겁니다. 번역을 완료한 후에도 그걸 한국에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탓하기 전에 이 일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좋은 번역들이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분들을 잊지 맙시다.

지금도 성경번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선교하는 방법이 독특하죠. 그냥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다 배웁니다.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선교사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몇 개 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재능과 능력이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찾아가서 살고 있는 곳이 후진국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위험한 곳에 살면서 오직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역을 합니다.

네팔에 성경번역 선교사로 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했다가 공부를 하느라고 신대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이 분은 샤워를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깐 밀린 것 한꺼번에 다 한대요. 네팔에는 샤워시설이 없었습니다. 목욕탕도 없고요. 그냥 계곡 물에 풍덩풍덩 하다가 행귀서 나오면 끝인데 때를 민다는 개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나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앞으로 못할 것까지 감안해서 부지런히 하고 갈 거랍니다.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샤워장에 가서 아예 독판치다시피 그렇게 있어요. 다시 네팔로 돌아가셨으니 또 몇 년간 때를 묻혀서 오겠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말이 어렵고 옛날 표현도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잔소리가 고마울 때

어떻게 보면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덕될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문둥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이 사람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문둥병이라고 판정이 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려면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함부로 문둥병이라고 판정하면 되겠어요? 진단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재미도 없는 얘기를 뭐 길게 하고 있느냐?” 그러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남의 일이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버릇입니다. 적어도 이 병이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사 문제가 걸린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야기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대체로 잘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대범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대범하게, “그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뒤편 보세요. 사고가 터져도 얼마나 터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잘 하는 선생님입니다. 너무 심해도 안되겠지만 아이들을 붙들고 일일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자잘한 선생님이 잘 하는 거지 사고를 치든 말든 숙제를 하든 말든 대범하게 입 꼭 물고 “그래 마 잘 한다.”고 내버려두면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술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입장이라면 이 기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둥이

제사제도나 다른 정결제도에 있어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둥병에서도 우리는 분명

히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이 문둥병의 모습이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둥병은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 걱정을 하지 않지만 2-3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을 고친 기록은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치신 경우만 몇 번 언급될 뿐이지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설교제목이 '나는 문둥이었다' 과거형으로 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병이 다 나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놓여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문둥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면서 선하게 사는 우리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 이상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선하다, 비교적 착하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끼리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슨 선한 일이 되겠으며 무슨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5공 시절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의리와 충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충성이지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안겨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끼리 선하고 착하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과정으로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병이라고 의심이 되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갔고 병이 나았다 싶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치료하러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둥병은 제사장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문둥병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형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 몸의 튀어나온 부분이 점점 뭉개져 버립니다.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튀어나온 부분이 뭉개지니까 문둥병 환자는 형상이 아주 혐악해집니다. 우리 몸의 튀어나온 부분, 귀, 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뭉개져 사라집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놓으셨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점점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면 가족을 다 버려두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환자촌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나환자는 전부 소록도로 가는 길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환자촌이 지방마다 군데군데 있더라구요. 그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남편이 병이 들어서 가게 되면 따라간 부인들이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부인이 병들어서 떠나야 할 때 따라간 남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을 들을 그 때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반성을 하기는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같으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개과천선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의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속의 죄악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완치된 문둥병자지만 과거에 병들었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완치되었으면 손가락이 붙어 있었겠지만 손가락이 떨어져나간 후에 완치되었으면 완치되었지만 그래도 손가락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끼쳤고 우린 지금도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되었지만 아직도 이 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흉칙하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찢려서 아픈 것도 행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교육 받을 때 문둥병의 증세 중의 하나가 살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 흰털이 나고 바늘로 찢러보아서 아프지 않으면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서 옆에 있는 아이를 콧 찢러보고 “아야!” 하잖아요? “니 문둥이 아니네.” 그러면 찢린 놈도 웃고 말죠.

여러분, 문둥병은 찢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나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 한분이 아주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발을 벗는데 뒷꿈치에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바늘로 찢러보았더니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분이, 나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던 외과의사였는데 ‘내가 나환자를 돕자고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해야 된다고 여태껏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나환자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나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외과수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혼자 밤을 새우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 오던 모든 일을 손을 놓아야 하고 나도 나 혼자서 떠나야 하고 여태까지 내가 나환자를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던 것이 이제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입장이 아니냐?’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 또 찢러본 거죠. 찢러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찢려서 아플 때 기분이 어떨까? 세상 천지에 바늘로 찢려서 아픈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피로하고 조이는 신발을 신고 너무 많은 여행을 한 끝에 잠시 신경이 마비가 되어있었던 걸 의사 자신도 모르고 나병 걸렸다고 밤새도록 오만 가지 그림을 다 그렸더라는 겁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신발에 있는 못이 올라와서 발바닥을 찌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부분이 상처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찢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의 특징 중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움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하고 난 다음 돌아가서 ‘그래도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차마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까? 아직은 문둥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까?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옆의 성도들과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못된 소리 해 놓고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 잘 주무십니까? 감각이 죽었다는 뜻이고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찌르면 찢리는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찢려서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쓴소리 한마디 내던지고 나니까 ‘그 성도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고, 아니면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힘들어 하실까?’를 생각하고 가슴 아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찢렸을 때에 아픔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자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문둥병의 특징은 언제 걸렸는지, 자신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병이 걸려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병인지, 내가 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령 건강이 악화되었다거나 화상을 입었다거나 종기가 났다거나 하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으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죄짓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김하게 하려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발 한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거죠. 일단 터져 나오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나 회사라면 IMF가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회사는 IMF 이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빚지지 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이 생각합니다.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감안해서 수준에 잘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공짜같은 기분으로 능력 이상의 카드를 긁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스스로 감당 못하게 되고 맙니다.

'복권사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수요일날 우리 백 강도사님이 '샀는 복권 잤다 버리십시오'라고 설교하더군요. 아니 그거 하나 사면 어떻게 또 이왕지사 사 놓은 것이 혹시 당첨되었을지도 모르는 데 한 번쯤 보는 게 뭐 어때요? 또 어느 분이 질문해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강도사님! 메가마켓에서 사 은권을 주는데 당첨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한 주관을 하나 가집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노립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공짜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걸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전한 삶이란 작건 크건 공짜를 바라지 않으며 불로소득이나 한꺼번에 큰 횡재가 떨어지는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공짜나 불로소득이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꼭 죄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금살금 잠식해 들어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공짜 좋아하고 횡재를 바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볼 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즐기지는 마십시오.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토요일영화까지 다 보면서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 올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나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보초로서 이 기도와 말씀은 좋은 보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완치된 문둥이

45절과 46절이 문둥병자가 해야 할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됩니다. '나와 접촉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애양원 다녀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애양원이 나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발전하게 된 초창기의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환자가 발생하면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광주로 가다보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한 명 발견한 거죠. 고치겠다고 자기 말에 태워서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갈과 모래를 던지더라고요.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외국인인 나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애쓰다가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걸 가슴 아프게 여기고 나환자 치료를 시작한 거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치료해주었던 그분들이 천사 아닙니까?

반대로 이 병이 들었다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문둥이 같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여났고, 그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잘 먹습니다. 음식마다 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 많죠.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먹니 못 먹니 하지만 옛날 임금님도 이만큼 못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레위기 13장을 읽으십시오. 13장의 이 문둥병자가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이고 내가 죄인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 이 모습으로 아니 앞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가끔 괴롭습니까? 성질 같으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믿는 내가,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참느라고 괴롭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가슴 아프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까? 교회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릅니까? 여러분이 문둥이 시절에는 옆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질대로 싸우는 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아픔을 느끼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마귀 손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적이든 아니든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면 이 모든 일에 무감각한 나는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참 많더라.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 병을 고쳐서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문둥이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양에 이상이 있다 해도 ‘완치된 문둥이’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져 나간 지체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